

## 1/26(화) 사사기 묵상 44

### 사사기 16:1-6

#### 삼손(6)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의 두번째 그리고 세번째 여인이 등장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손은 사사로서 엄청난 힘을 은사로 받았지만 나실인으로서 경건의 규례를 다하지 못하고 세상 향락에 빠지게 됩니다. 이로써 삼손은 그가 사랑했던 여인들로부터 이용만 당하게 됩니다.

#### 가사의 기생

가사는 블레셋의 주요 다섯 개 도시들 중에 하나입니다(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삼손이 자신의 고향인 소라에서부터 약 40마일(60킬로) 떨어진 지역인 가사에 가게 된 이유는 정확히 모릅니다. 추정컨대 삼손이 레히에서 블레셋인 천 명을 나귀턱 뼈로 쳐죽인 이후 자신의 힘을 믿고 블레셋 땅을 왕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블레셋 안에는 이미 삼손에 대한 소문이 들렸을 것이고 그를 죽이고 싶었지만 누구도 삼손의 힘을 제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잡을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있는 한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2절상,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이처럼 당시 블레셋에 왕래하는 것은 삼손에게 있어 위험천만한 일이었지만 그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나실인인 삼손이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그가 얼마나 부주의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3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빋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헤브론은 가사에서 이스라엘 동쪽으로 약 40마일이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여기까지 삼손이 가사의 ‘성문짝과 두 문설주와 문빋장’을 옮겼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말해줍니다. 하나는 삼손의 힘이 상상을 초월했다는 것과 또 하나는 가사를 상징하는 성문의 문짝들이 옮겨졌다는 것은 삼손에 의해 블레셋의 권세가 이스라엘로 옮겨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삼손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방탕한 삶을 유지한 채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사의 기생에 대한 기록만 남겨 놓았지 삼손이 온전한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내용이 없는 것을 볼 때 그는 방탕한 삶을 계속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삼손과 들릴라

삼손은 드디어 이스라엘 안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녀의 이름이 ‘들릴라’라고 말씀합니다. 삼손이 만났던 여자들 중에 유일하게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4절, “이 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와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그러나 그녀의 이름, ‘들릴라’는 ‘연약한, ‘음탕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들릴라도 삼손이 이전에 만났던 여자들처럼 정숙한 여인은 아니었다라는 힌트를 독자들에게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로 삼손과 들릴라가 정식으로 혼인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삼손에게 있어 안목의 정욕은 그의 영

적인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한편 삼손의 일거수일투족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 국가적으로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방백들이 삼손과 들릴라가 살고있는 이스라엘 땅까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들릴라를 재물로 유혹해 삼손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알게 해달라고 거래를 시작합니다(5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꺾어서 무엇을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천백 개씩을 네게 주리라 하니”). 여기서 은 천백개는 ‘은 천 백 세겔’을 가리키는 것으로 ‘은 한 세겔’은 당시 일반 노동자들에게 4일간의 품삯에 해당하는 액수였습니다. 그러므로 ‘은 천 백세겔’은 십년치의 노동비에 해당하는 큰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에 넘어간 들릴라는 결국 삼손의 큰 힘이 어디서 나는지를 묻게 됩니다.

삼손은 어떤 사사들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던 큰 힘과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하나님께 약속 받았지만 그는 블레셋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정욕을 제어하지 못함으로써 계속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힘센 남자들과의 싸움에 있어서는 자신 있었던 삼손은 결국 연약한 여자들에게는 약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손과 같이 영적으로 교만하고 부주의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크리스천 리더들이 또 여러 사람들이 돈과 명예 그리고 이성 앞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그들이 영적으로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전제 의식을 갖고 영적으로 겸손하게 절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죄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작은 죄에서부터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죄를 허용하게 되면 그 죄는 점차 더 커지고, 죄를 짓는데 있어서도 우리는 점점 더 담대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삼손과 같은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영적 민감성과 더불어 자신에 대한 영적 겸손함을 늘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2. 코로나를 위한 기도: 미국내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들과 가족들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 연구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위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위원회를 섬기는 장로님과 부서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 하겠습니다.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T국에서 사역하시는 김흥기 선교사님과 가정의 건강 그리고 사역지를 위해서 중보해주시기 바랍니다.